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2호 HYUNBULNEWS.COM 2026년 6월 17일(음력 5월 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차별금지·과거사 '진전'
문화유산 전승 '과제多'

이재명 정부 1년, 불교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불교계가 제안했던 주요 정책 과제들이 국정 운영 과정에 반영되며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다. 혐오·차별 대응 체계 구축과 과거사 진상 규명, 종교계를 통한 남북교류 복원 등은 일부 진전을 보인 반면,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러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통해 주요 정책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사회통합과 차별 해소, 남북교류 활성화, 전통문화 진흥 등을 담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혐오 · 차별 대응 체계 강화

불교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일부 진전을 보였다. 불교계는 평등사상에 기반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체투지와 기도회 등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 각계 소수자들이 설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왔다.

정부도 혐오·차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올해 2월 혐오표현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과 국회의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 토론회('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제도 정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 시행 사례 및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며, 향후 입법 기반 마련을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 · 명예회복 '진전'

불교계가 제안한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희생자 범위가 사람에 한정돼 있어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보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추가 신고를 접수해 진상규명 2419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995건을 새롭게 접수했다.

조사 활동 기간도 올해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했으며, 현재까지 희생자 3316명과 유족 1만2508명에 대한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후속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족들에 대한 인정 절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도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공동 유전자 감정 추진에 합의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관음종은 2016년부터 한·일 합동 위령재와 유해 발굴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 회)' 및 유족회와 협력해 진상규명에 힘써왔다. 특히 수중 탐사와 갱구 개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유해 발굴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25년 8월 사고 발생 83년 만에 첫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유해 발견 이후 열린 제84주기 현지 추도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유해 발굴에 기여한 '새기는 회'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한·일 양국이 DNA 감정 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유해 봉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해결된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태고종은 6월 10일 선암사에서 '불기 2570년 전국 승려 · 전법사(교임) 연수교육 및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 정체성과 한국불교 전통 법맥 계승 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한 이날 자리에는 전국 종도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태고종 승려대회…"태고 법맥 계승" 천명

6월 10일, 순천 선암사서 봉행
전국 종도 1000명 동참해 '성황'
정체성 재확인 "수행 · 전법 매진"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고 종단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태고종은 6월 10일 선암사에서 '불기 2570년 전국 승려·전법사(교임) 연수교육 및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 정체성과 한국불교 전통 법맥 계승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종정 운경 대종사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승려대회에는 전국에서 종도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승려대회는 태고종이 지난 5월, 기관장·교구종무원장 회의를 통해 결의한 행사로, 선암사를 태고종의 상징적 도량이자 한국불교 전통 법맥의 중심도량으로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고종은 선언문에서 "태고총림 선암사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지켜온 수행도량이자 한국불교태고종의 법맥과 종통이 살아 숨 쉬는 총본산"이라며 "오랜 법난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적 검증을 통해 선암사의 정체성과 법통의 실체가 한국불교태고종에 있음을 천하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선암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며 "달라진 종단의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언문에서는 세 가지 실천 과제도 제시됐다. 먼저 "한국불교의 종조인 태고보우 국사의 법맥과 해동 율맥을 온전히 계승한 한국불교 정통종단 태고법손임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아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 "확고해진 종단의 정통성과 위상을 바탕으로 종지종풍을 드높여 신앙하고 지속 가능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힘껏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불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교화와 수행·전법에 매진하며 국민과 상생하는 대승교화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3면에 계속

순천 선암사=임은호 기자

위기 가정, 템플스테이로 치유한다

불교문화사업단 · 복지부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운영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가 템플스테이를 통한 위기 가정 치유에 나선다.

문화사업단과 복지부는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보듬'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보듬과 치유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활동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정보 교류 △사회 공익 및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진우 스님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돌보는 복지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마음이 힘들 때 치유해주는 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차원에서 마음 건강을 돌보는 복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저는 '마음 안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종단에서는 국민들의 '마음 안보'를 위해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 선명상을 통해 국민들이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10th 佛은 생명 敎는 생활 2016 - 2026

대행선연구원 창립 10주년

대행선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대행선과 한마음 사상을 연구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현대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불교계 교수 및 학자분들과 한마음선원 이사장스님, 주지스님,
각 지원장스님, 소임자 스님들과 대중스님, 신도회임원진 및 선원 사부대중
그리고 선원 바깥의 인연 닿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대행선연구원은 앞으로도 대행선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교육을 모색하며 연구와 실천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진화발전하는 대행선연구원이 되도록 가일층 정진하겠습니다.

2026년 6월
- 대행선연구원 일동 -

제10회 학술대회 안내
대주제 :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
일 시 : 2026년 6월 20일(토) 09:30~17:30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한마음선원 유튜브 생중계 *구체적 사항은 연구원 홈피 참조
문 의 : 대행선연구원 www.daehaeng.re.kr
031)470-3277 myogong@daehaeng.org

대행선 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